



▲ 경남도협의회(회장 박창식)는 지난 7월 4일 마산 소재 아리랑 호텔에서 제8·9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양돈협 경남도협의회 제8, 9대 이취임식 개최

박창식 도협의회장, “FTA 극복 책임 막중… 최선 다할 것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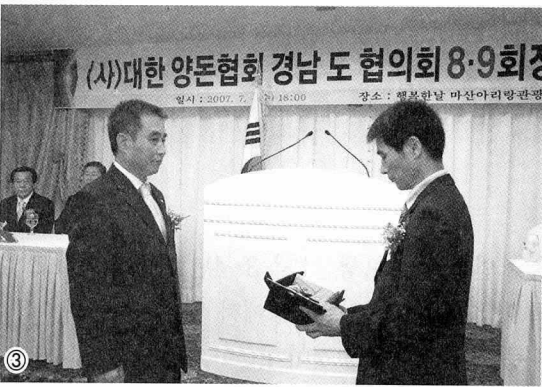
홍보부

대한양돈협회 경남도협의회(회장 박창식)는 지난 7월 4일 마산 소재 아리랑 호텔에서 제8·9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환 양돈협회장과 최영열 양돈협회 명예회장, 조근제 도의원을 비롯한 양돈인 출신 시·군의원, 최상백 고문, 경남도 강효봉 축산과장, 경남지역 지부장 및 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 하태식 전임회장의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박창식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하태식 전임 회장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임기 동안 아무런 대과 없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었던 것은 각 지부장들과 회원여러분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 양돈협회 부회장으로서 양돈산업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9대 경남도 협의회장으로 취임한 박창식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미 FTA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양돈산업



- ① 박창식 제9대 경남도협의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미 FTA라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양돈인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 ② 격려사를 하는 김동환 양돈협회장.
- ③ 박창식 신임 경남도협의회장이 하태식 전임 협의회장(현 양돈협회 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 ④ 박창식 신임 경남도협의회장이 여영성 전임 협의회 사무국장(창녕지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사진 왼쪽부터 최영열 양돈협회 명예회장, 박창식 9대 협의회장, 여영성 8대 협의회 사무국장, 김동환 양돈협회장, 이등문 협의회 사무국장, 최상림 협의회 감사, 하태식 8대 협의회장(현 양돈협회 부회장)

발전에 위해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양돈인들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981년 농민 후계자로 선정된 신임 박 회장은

한농연 창원시연합회장과 경남도 연합회 감사를 역임한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현재 양돈협회 창원지부장, 양돈협회 이사, 양돈자조금 관리위원직을 맡아 양돈산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돈**